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11월 1일

CUOMO 주지사, 폭풍 탄력성 및 비상 대비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대학 제휴 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비상 대비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의 허브로서 뿐만 아니라 극한 날씨 및 자연 재해 관련 정보의 교환소로 기능할 New York University 및 Stony Brook University가 이끄는 새로운 “응용 싱크탱크”인 뉴욕주 폭풍 비상 탄력성 연구원(NYS RISE)의 출범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탄력성 연구원은 대학의 사고 리더들뿐만 아니라 정부 관리, 전국의 전문가 및 비상 대응 리더들을 불러모아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 입안자 및 이해 관계자들이 지역사회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종합 계획의 개발로 이끌 과학적 연구와 지적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수퍼폭풍 Sandy, 허리케인 Irene 및 열대성 폭우 Lee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르쳤지만 그 중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오늘날의 변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기후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뉴욕주 폭풍 비상 탄력성 연구원을 출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NY RISE는 우리 주의 최고 대학들 중 몇몇 대학을 규합하여 극한 날씨 및 비상 대비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의 세계적 싱크탱크로 기능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국에서 최고의 학문적 리더, 정책 입안자, 비상 전문가 및 최초 대응자들을 모아서 하나의 단순한 목표, 즉, 자연 재해에서 뉴욕주 커뮤니티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 탄력성 연구원은 정책 입안자 및 비상 대응자들을 위한 전주적 닻으로서 기능하여 극한 날씨 사건 전, 중, 후에 중요 결정을 알리기 위한 종합 분석을 제공할 것입니다. 탄력성 연구원은 폭풍 위험 관리 관련 사고 리더십 및 지식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계 및 인프라 설계, 운용 및 투자에서 탄력성을 제공하고 계량화하는 데 있어서 기관들을 돕기 위해 전문 지식을 제공하며; 예측을 적응 조치로 변환시키기 위한 플랫폼을 개발할 것입니다. NYS RISE 접근법은 연구에서 적용으로의 변환을 가속화함으로써 극한 날씨 사건에 대한 대비를 확보하여 더욱 탄력적인 뉴욕주라는 목표를 실현할 것입니다.

탄력성 연구원이 수행할 프로젝트로는 미래의 기후 유발 폭풍에 대비하기 위한 신속 대응 계획의 개발; 뉴욕주의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안서 작성; 극한 날씨 사건 취약 지역 파악; 기후

Korean

변화로 인한 폭풍 위험에 대한 장기 계획의 수립.

NYU와 Stony Brook University 이외의 파트너들로는 Columbia University, Cornell University, City University of New York 및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가 있습니다.

SUNY의 총장 Nancy L. Zimph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NYS RISE 이니셔티브로 뉴욕주는 앞으로 심한 날씨에 앞서서 우리 커뮤니티들을 더 잘 보호하고 그러한 사건 후에는 더 잘 재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원의 데이터 기반, 협업적 접근법은 뉴욕주의 가장 훌륭한 자산, 자원 및 전문가들을 규합함으로써 우리 주는 향후에 가장 효과적인 혁신과 대비 방법만 식별하여 사용하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SUNY는 뉴욕주 전체가 더욱 조심할 수 있는 이 중요한 파트너십의 일원이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Stony Brook University의 총장 Samuel L. Stanley Jr, M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북부 뉴욕주의 허리케인 Sandy로부터 극심한 홍수에 이르기까지 뉴욕주는 생명을 위협하고 취하며, 재산을 파괴하여, 회복하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자연 재해 및 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NYS RISE는 Cuomo 지사의 비전을 통해 우리가 큰 폭풍 및 그것이 우리의 해안 환경,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하고 중요하게는 인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식별하도록 도울 연구자들의 협업입니다. 우리의 해양대기과학대학원을 통해 Stony Brook University는 NYU 및 지역의 훌륭한 연구 기관들과 협력하여 뉴욕주가 재건하고 미래의 폭풍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돕기 위한 연구 및 지식을 제공할 것을 기대합니다.”

뉴욕대학교 폴리테크닉대학의 학장 Katepalli Sreenivasan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안 대비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의 허브 역할을 할 이 공공-민간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주가 극한 날씨 조건의 파괴적 효과를 진실로 느낀 이 때에 뉴욕주 폭풍 비상 탄력성 연구원은 우리 지역이 장기적인 기후 변화에 대비하여 허리케인 및 홍수 탄력적 도시가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ornell University 총장 David Skort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주의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Cornell 대학교는 NYS RISE의 파트너가 되어 기쁩니다. 엔지니어링에서 우리의 상당한 강점은 뉴욕주가 폭풍 대비 및 회복의 리더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인데, Cornell의 전주적 도달 범위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곳이 어디든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